

# ‘一語雙文制’ 小考\*

김상원\*\*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글
  - II. ‘一語雙文制’와 ‘語文現代化’
    - 1. ‘一語雙文制’ 주장의 전개 양상
    - 2. ‘漢字廢止論’과의 차이점
  - III. ‘一語雙文制’ 추진의 객관적 기초
    - 1. 글쓰기 방식의 디지털화
    - 2.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생존 경쟁
    - 3. ‘非漢字符號’의 증가와 문자 인식의 변화
  - IV. 나오는 글
- 

## I. 들어가는 글

현재 중국 정부는 한자를 유일한 공식문자로 간주하는 ‘漢字一文制’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10월 31일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이 ‘규범 한자’를 국가 통용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 중국 정부의 ‘漢字一文制’ 정책 기초는 역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자를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한자를 대신해서 〈漢語拼音方案〉을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의 18조는 “〈漢語拼音方案〉은 중국 인명, 지명과 중문문헌의 로마자모 철자법의 통일 규범으로 한자를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한다.” 그

---

\* 본 논문은 2015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교 통상중국어과 교수

리고 “초등교육은 반드시 한어병음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漢字—文制’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한자의 대체 표기 수단으로서 〈漢語拼音方案〉의 법적 지위 역시 확고하다.

특히 20세기 말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 객관적 어문환경의 변화는 종래의 한자의 독보적인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언어와 문자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과 소통을 매개하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과 각종 정보화 기기의 접촉과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어와 한자도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통일화·규범화·표준화 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영역에서는 코드화 작업과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자는 과학기술과의 부조화라는 한계를 드러낸 반면에 〈漢語拼音方案〉과 병음자모는 과학기술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며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인들의 일상 문자생활과 밀접한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을 비롯한 정보화 기기에서는 〈漢語拼音方案〉과 병음자모가 한자의 지위에 버금가는 위상을 누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어문환경의 변화와 한자의 위상 변화 속에서 기존의 ‘漢字—文制’로는 더 이상 새롭게 제기되는 각종 어문과제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어문학자들을 중심으로 ‘現代 漢語 普通話’를 漢字와 拼音文字 두 가지 문자 형태로 표기해야 한다는 ‘一語雙文制’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어문현실과 주요 과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중국 정부의 문자정책 기조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一語雙文制’ 주장의 전개 양상과 특징,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가져온 중국인들의 일상 문자생활상의 변화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一語雙文制’와 ‘語文現代化’

### 1. ‘一語雙文制’ 주장의 전개 양상

1980년대 초반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국 어문정책 조정 과정에서 〈漢語拼音方案〉의 대표적 설계자 중의 하나인 周有光은 한어병음을 한자의 ‘보조 문자’ 방안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식 문자인 한자와 보조 문자인 한어병음 자모를 함께 공존시키고 사용하는 ‘이중 문자 체제’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늘날 中文은 두 가지 문자 도구를 갖고 있다. 한자는 정식문자이고 한어병음은 보조적인 문자 도구이다. 현대 중국 청년은 한자를 쓸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어병음도 쓸 줄 알아야 한다. 단독 문자생활(monographia)에서 이중 문자 생활(digraphia)로 향상시켜야 한다.<sup>1)</sup>

이러한 ‘一語雙文制’ 주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가 ‘漢字一文制’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확산되지 못하다가 20세기 말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 ‘一語雙文制’ 주창자인 王開揚은 한어병음 ‘자모’를 한어병음 ‘문자’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一語雙文’은 중국 언어문자 종사자들이 중국의 미래 문자제도에 대해 제기한 하나의 구상이다. ‘一語’는 ‘하나의 언어’로 현대 한민족의 공통어인 보통화를 가리키며, ‘雙文’은 ‘두 가지 문자’로 한자와 한어병음문자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 한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한어병음문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사용하며 보조적 역할을 한다. 하나의 언어가 두 가지 서면 형식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체계의 문자가 장점은 발휘하고 단점은 피하도록 하고 서

1) 周有光, 〈文字改革的新階段〉, 《文字改革》, 1985.5, 張育泉 輯錄, 〈“雙文制”論述集粹〉에서 재인용 <http://tieba.baidu.com/p/2407994564>

로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한어와 한자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흥국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王開揚의 주장에 호응하여 蘇培成도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어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一語雙文制’를 도입하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말하는 雙文制는 一語雙文이라고도 한다. 그것의 내용은 한어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나는 전통적인 한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생긴 한어병음문자이다. 한자는 첫 번째 문자이고, 병음문자는 두 번째 문자이다. 이것이 21세기를 대처해 나가는 중국문자의 유일하고 정확한 전략이다.<sup>3)</sup>

王開揚과 蘇培成을 필두로 새롭게 진영을 구축한 ‘一語雙文制’ 주창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 과학기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자의 기술적 한계가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어 정보의 자동화 처리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어문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당위적인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보다 실질적인 ‘一語雙文制’ 실행 방안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먼저 馮志偉는 한자가 중국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역사성과 상징성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온라인과 정보과학 분야에서만 한자와 한어병음을 함께 사용하는 ‘文字雙軌制(two-script system)’를 실행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한자와 한어병음을 함께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문자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동변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온라인에서 만큼은 한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자의 전통 역량은 매우 강력하고, 라틴화신문자는 전 국민들에게 추진하기 어렵다. 한자는 중화민족 전통문화의 상징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히 명맥을 이어갈 것

2) 王開揚, 〈“一語雙文”의理論基礎和面臨的困難〉, 蘇培成, 顏逸明, 尹斌庸 編, 《語文現代化論文集》, 商務印書館, 2007, 33쪽

3) 蘇培成, 〈雙文制：面向21世紀的中國文字策略〉, 趙麗明, 黃國營 編, 《漢字的應用與傳播》, 華語教學出版社, 2000, 425쪽

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 인프라 시대에 전 인민들에게 라틴화신문자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컴퓨터상에서만 文字雙軌制(two-script system)를 실행한다면, 즉 한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어병음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고, 한어병음은 컴퓨터 정보처리와 전송에만 한정해서 사용하며, 아울러 고효율의 정확한 한자와 한어병음의 자동변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의 수요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양자의 상호 전환을 진행하며, 사람을 향할 때는 한자로 전환하고, 컴퓨터를 향할 때는 한어병음으로 전환되게 한다면, (……중략) 라틴화신문자 운동의 선구자들이 꿈에 그리던 이상은 비록 전 인민들에게는 실현할 수 없지만 컴퓨터 통신 인프라에서는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吳文超는 馮志偉가 언급한 한자와 한어병음 자동변환 시스템에 기초한 소위 ‘컴퓨터 병음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컴퓨터 병음법’은 병음으로 글을 쓸 수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한자로 변환시켜 전통적인 서사문의 느낌도 보존할 수 있는, 고도의 호환성을 갖춘 온라인 서사 방안이었다. 그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병음중문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드 전환의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一語雙文制’를 컴퓨터와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어문이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역량이 부여하는 영향과 흡인력 이외에도 그 자체의 구조적 합리성 때문에 상대적 우세를 점할 수도 있다. (……중략) 고도의 호환성을 갖춘 병음과 한자 雙文制는 우선 컴퓨터 응용 분야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필자는 컴퓨터 병음법이 병음중문의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어문이 마침내 코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사람들은 병음중문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며, 일대일 전환 부호(單碼)를 이용해서 문언문의 느낌을 보존할 수도 있다. 컴퓨터는 언제든지 일대일 전환 부호(單碼)를 표준의 한자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馮志偉와 吳文超의 방안은 ‘一語雙文制’가 궁극적으로는 한자의 전통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병음문자를 공식적인 서사 문자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漢字一文制’ 지지자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한편 컴퓨터와 온라인을 통해 ‘一語雙文

4) 馮志偉, 〈發揮漢語拼音在信息時代的作用〉, 《語文現代化論文集》, 43~44쪽

5) 吳文超, 〈從漢語拼音到拼音中文〉, 《語文現代化論文集》, 207~208쪽

制' 추진에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종의 절충안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陸丙甫는 이들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에서는 한어병음 '자모'를 한자를 입력하거나 그것으로 변환시키는 중개 수단이 아니라 직접 '문자'처럼 사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즉 오프라인에서는 한자를 서사 문자로 사용하고 컴퓨터와 온라인에서는 한어병음을 서사 문자로 사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一語雙文制'를 구현하자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한자가 입력된 것을 보고 한자가 이미 서양 문자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커다란 오해이다.(.....중략) 비교적 편리한 해결책은 바로 더 이상 병음을 단지 입력 중개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그것이 직접 단말기 디스플레이 형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병음도 문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중략) 이처럼 한자와 병음 중문이 병존하는 것이 '一語兩文' 제도이다.<sup>6)</sup>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는 한어병음자모를 한자의 보조수단으로 간주하는 '漢字一文制'를 유지하더라도 컴퓨터와 온라인에서만은 한자와 한어병음방안을 동등한 지위를 갖는 독립적인 문자로 사용하는 '一語雙文制'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컴퓨터와 온라인에서의 '一語雙文制' 실험 경험과 한어병음자모와 한자의 상호 변환 시스템 사용 추이를 바탕으로 그것의 적용 범위를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一語雙文制'를 구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 2. '漢字廢止論'과의 차이점

20세기 말 정보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두된 '一語雙文制' 주장은 한자의 복잡함과 난해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어문 응용상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문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一語雙文制' 주장들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한자가 다시 한 번 정보화 시대에 진

6) 陸丙甫, 〈略談中文拼音化的道路〉, 張育泉 輯錄, 〈“雙文制”論述集粹〉에서 재인용  
<http://tieba.baidu.com/p/2407994564>

입한 중국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예전과 달리 한자를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자를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잘 보호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는 그것(한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최적화해서, 한자가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규범적이고, 더욱 배우기 쉽고,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변화시켜야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중략) 언어문자는 중요한 문화자원이기도 하다.<sup>7)</sup>

이처럼 20세기 말의 ‘一語雙文制’ 주장은 한자의 역사성과 그것이 중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전된 인식과 이해 위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한자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함께 새로운 병음중문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전의 선배 어문개혁론자들처럼 설불리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 대신 통일화·규범화·표준화를 통해 한자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20세기 어문개혁운동의 대표적 성과 중의 하나인 〈漢語拼音方案〉의 체계를 가다듬어 독립적인 문자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그것의 응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당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하고자 했다.

‘一語雙文’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향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하나는 어려움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여 성급하게 무턱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자의 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一語雙文’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一語雙文’은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 ‘一語雙文’은 또한 漢語文이 현대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필연적인 추세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건실한 작업을 통해 한걸음 한걸음씩 병음화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한걸음 한걸음씩 〈漢語拼音方案〉의 응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一語雙文’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sup>8)</sup>

7) 楊士輝, 楊松, 〈“一語雙文”是漢字現代化的必由之路成功之路〉, 《第十二次漢字書同文學術研討會論文集》, <http://www.gzyywwz.net/bencandy.php?fid=46&id=5>

8) 王開揚, 〈“一語雙文”的理論基礎和面臨的困難〉, 《語文現代化論文集》, 39~40쪽.

한편 20세기 말의 ‘一語雙文制’ 주장자들은 ‘文字改革’이나 ‘漢字改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語文現代化’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 명칭은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과 어문개혁의 연관성을 부각시킨 것으로서, 어문개혁의 목적은 바로 국가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이 명칭은 백 여 년 동안의 어문개혁의 각 방면과 각 단계를 포괄할 수 있다.”<sup>9)</sup> 이들이 이전과 달리 ‘語文現代化’라는 명칭을 채용한 것은 20세기 말 달라진 중국 문화와 중국의 위상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정보 과학기술과 언어문자, 민족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과 이해 때문이기도 했다.

정보의 주요 매체가 언어문자이고, 언어문자는 또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고, 전파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은 다른 첨단 기술과는 달리 확연한 민족문화 특색을 지니고 있다. 국제화된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보기술 중의 언어문화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sup>10)</sup>

종래의 어문개혁운동은 대체로 전통문화를 개혁하고 서구 근대문명을 수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20세기 말의 ‘一語雙文制’는 새로운 정보 과학기술과 한어문화의 융합을 통해 중국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한자를 폐지하려고 하기 보다는 코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한자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온 중국 전통문화를 지켜내고자 했다.

정보기술이 한어문화의 영역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개조하여 한어와 한자의 특징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중략)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 인민들은 선진적인 기술을 채용하여 한어와 한자 처리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어와 한자, 그리고 그것들이 짊어지고 있는 중화문화를 지켜냈다.<sup>11)</sup>

그리고 나아가 정보 과학기술과 한자 처리기술의 융합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 연

9) 蘇培成, 《中國語文現代化的回顧與展望》, 語文出版社, 2007, 5쪽.

10) 俞士汶, 〈信息技術中的語言文化特點〉, 《語文現代化論文集》, 121쪽.

11) 俞士汶, 〈信息技術中的語言文化特點〉, 《語文現代化論文集》, 124~125쪽.



구가 질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문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문화의 생명은 교류와 전파에 있다. 정보기술은古籍의 정리와 연구, 출판의 현대화에 광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해주었다.典籍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기록 매개체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전체 문장 검색, 개념 검색, 판본 대비, 하이퍼링크 등의 수단은 고대 철학, 문화, 언어, 문학, 의학, 기술 연구에 큰 힘을 보태주어 단순히 폭넓게 보고 외우는 데 의존하던 전통적인 연구 방식을 변화시켰다.(……중략) 초보적인 연구 결과는 당대 정보기술과 전통 중화문화가 서로 결합했을 때 갖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sup>12)</sup>

이처럼 20세기 말 語文現代化의 일환으로 제기된 ‘一語雙文制’는 종래의 ‘文字改革’이나 ‘漢字改革’ 주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자를 중국문화의 정수로 간주하고 그것의 위상과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그리고 〈漢語拼音方案〉과 정보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자로 기록되어온 중국문화를 보존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 Ⅲ. ‘一語雙文制’ 추진의 객관적 기초

#### 1. 글쓰기 방식의 디지털화

19세기 중엽 라틴자모를 사용하는 국가가 전보를 발명했을 때 중국의 한자는 이러한 신기술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보 기기를 한자에 맞추도록 해서 ‘四碼電報’<sup>13)</sup> 방식을 개발했다. 하지만 四碼電報 방식과 拼音電報 방식은 마치 우마차

12) 俞士汶, 〈信息技術中的語言文化特點〉, 《語文現代化論文集》, 136쪽.

13) 각각의 개별 한자에 모두 네 자리로 된 숫자를 부여하고, 숫자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전보를 보내고 수신자는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찾아서 메시지를 판독하는 방

와 기차처럼 속도나 효율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났다. 19세기 말 라틴자모를 사용하는 국가가 자모 타자기를 발명했을 때도 한자는 이러한 새로운 기기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타자기를 한자에 맞추도록 해서 크고 무거운 중문 타자기를 발명했다. 하지만 사용상의 비효율성과 불편함 때문에 중국인들의 글쓰기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20세기 말까지 근 100년 동안 기계 타자기의 시대를 잃어버렸다.<sup>14)</sup> 하지만 서양의 타자기는 서양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을 ‘寫字’를 ‘打字’로 바꿔 기계화를 실현했다. 그리고 이후 서양 사람들은 타자기의 양식을 계승하여 컴퓨터 자판을 개발함으로써 매우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수억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필기구로만 글을 쓸 수 있었다.<sup>15)</sup>

20세기 말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글쓰기 방식에 커다란 변혁을 요구했다. 컴퓨터가 기존의 문방사보를 대체함으로써 종래의 손으로 ‘쓰기’는 키보드를 통한 ‘타자’와 ‘입력’ 방식으로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16)</sup>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글쓰기 방식의 디지털화가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문화가 처했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자는 영문처럼 자모 문자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키보드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코드<sup>17)</sup>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초창기에 보급된 컴퓨터는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수많은 한자들의 코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컴퓨터 안의 각 부품 사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바이트<sup>18)</sup>라고 한다. 하나의 바이트는 8개의 2진법 비트로 구

식이다.

14) 蘇培成, 〈雙文制：面向21世紀的中國文字策略〉, 《漢字的應用與傳播》, 425쪽 참조.

15) 俞士汶, 〈信息技術中的語言文化特點〉, 《語文現代化論文集》, 123쪽 참조.

16) “중국 역사상 두 차례에 걸친 문서 도구의 대변혁이 있었다. 첫 번째는 2700년 전 갑골이 죽간으로 바뀐 것이며, 두 번째는 1900년 전 죽간이 종이로 바뀐 것이다. 지금 세 번째 대변혁이 발생하여, 컴퓨터가 기존의 문방사보를 대체하고 있다.” 周有光, 〈拼音正詞法和國際互聯網〉, 《語文現代化論文集》, 64쪽.

17) “통신에서 글자·단어·구절과 같은 한 단위의 정보를 그에 상응하는 임의로 선택된 어구로 바꾸는 데 사용하는 일정한 규칙”을 가리킨다.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1k2797a>

18) “정보량의 최소 단위인 비트(0과 1)의 집합으로 구성된 기본 단위. 8비트(bit)로 1바이

성되며, 256종의 서로 다른 코드를 나타낼 수 있다. 영어권 국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100여 종에 불과하다. 사람이 컴퓨터와 접속할 때 바이트와 이 100여 종 코드 사이에서 매우 편리하게 전환 작업을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영어 문화의 이러한 적응성은 컴퓨터가 영어권 국가에서 신속하게 보급되고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데 있어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주었다. 컴퓨터가 중국에 들어온 후 한자와 이 선진적인 정보처리 도구는 적응하지 못했다. 한자의 수량이 1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컴퓨터 내부에서 최소한 2바이트의 코드를 사용해야만 수천에서 수만의 한자를 나타낼 수 있었다. 단지 이 문제만으로도 컴퓨터 내부 조작과 컴퓨터 사이의 통신에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왔다. 이밖에 자형의 표시와 저장, 한자의 입력과 출력 등 부분에서도 영어를 처리할 때는 접하지 못했던 일련의 어려움이 있었다.<sup>19)</sup>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효율적인 습득과 공유, 전파가 중요한 일상의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이 정보의 핵심 매개체는 더 이상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코드화된 문자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은 정보 매개체로서의 기존 문자 체계와 정보화 운영 시스템으로서의 기계의 효율적인 조응, 즉 효율적인 코드 부호 전환 시스템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자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문자 체계를 정보화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 부호로 전환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자 중심의 중국의 어문체계는 정보화 시대의 달라진 어문환경에서 또다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전보와 타자기가 도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자와 과학기술의 부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어문개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기기를 문자에 맞춰야지 문자를 기기에 맞추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한자 정보 처리 기술 개발을 촉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시

트(byte)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바이트는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 저장, 전송의 기본적인 단위로 많이 사용된다. 1바이트가 8비트로 구성되는 경우 비트의 조합은  $2^8=256$ 가지가 되며, 이것을 문자 부호로 사용하면 알파벳 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 구두점 등 문법 기호 및 일부 특수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이나 한자는 수천 또는 수만 종류가 있기 때문에 2바이트 부호가 사용된다. 2바이트 부호로는 6만 5,536종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Daum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5XXXXX11021>

19) 俞士汶, 〈信息技術中的語言文化特點〉, 《語文現代化論文集》, 122쪽.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문자를 기기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면서 한자 대신에 병음자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다행히 20세기 말 중국의 상황은 19세기보다는 덜 비관적이었다. 먼저 1982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한어를 표기하는 국제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 〈漢語拼音方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한자 정보처리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타자기와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중국 어문학자와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쓰기 방식의 디지털화에 적합한 ‘병음 입력법’을 개발해낼 수 있었다.<sup>20)</sup>

이 ‘병음 입력법’의 개발에 힘입어 “지금 중국의 각 영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한자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한자를 전송할 수 있으며, 한자 정보 처리는 이미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 되었다. 컴퓨터는 이를 빌어 중국사회로 들어왔으며, 전통의 중화문화는 이미 컴퓨터라는 당대 고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서로 융합하여 중화민족의 발전과 중국문화의 진흥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주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이 ‘병음 입력법’은 떠오르는 생각을 다른 중간 과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직접 타이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글쓰기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주었다. 또한 보통화의 어음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병음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발음을 교정하고 보통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보통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한어와 한자의 통일성·규범성·표준성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병음 입력법’을 통한 글쓰기

20) 컴퓨터에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전체 글자(整字) 입력’ 단계와 ‘코드(編碼) 입력’ 단계를 거쳐 현재는 대부분 〈漢語拼音方案〉에 기초한 ‘병음 입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글자 입력은 ‘큰 자판 입력’이라고도 한다. 특별 제작한 자판을 이용하여 입력하려는 한자를 모두 자판 위에 나열해 놓는다. 어떤 글자를 입력하려면 특별 제작한 전자 연필로 그 글자를 찍어서 입력한다. 이 방법은 지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 입력’은 글자의 모양에 착안하여 자형(字形)의 특징 정보를 취해 코드화한다. 어떤 것은 한자를 필획으로 분류하고, 어떤 것은 한자를 자형(字形) 구성 요소로 분류한다. (……중략) 병음입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작은 자판을 이용하여 한어병음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한자로 자동 전환시켜 출력하는 것이다.” 蘇培成, 《中國語文現代化的回顧與展望》, 35쪽.

21) 俞士汶, 〈信息技術中的語言文化特點〉, 《語文現代化論文集》, 123쪽.

방식의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어문생활상의 변화들은 ‘一語雙文制’ 추진에 든든한 객관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생존 경쟁

컴퓨터 도입 초기에 대두되었던 한자의 수량과 코드화 문제는 컴퓨터의 용량 확대와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에 따라 ‘한자 문자코드표(大字符集)’와 ‘병음입력’ 방식을 통해 기술적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한자는 자모 문자체계가 아니어서 컴퓨터나 인터넷 공간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번거로운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한자 입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중국의 어문체계가 이상적인 인터넷 생존방식을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일종의 오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컴퓨터의 모니터에 이미 충분히 한자를 띄울 수 있고, 또한 모든 복잡한 자형을 포함하여, 심지어 고문자와 상형문자, 그리고 그림문자 등등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자가 정보 인프라 공간에서 생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어문현대화도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표면적인 현상만 본 것이다. ‘디지털화’ 형식을 획득했다는 것과 ‘가장 훌륭한’ 인터넷 생존방식을 획득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sup>22)</sup>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같은 정보화 기기와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주요한 생산기반으로 하는 지식경제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식경제 시대에 어문 체계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의 습득과 운용, 전파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력의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언어문자의 전파와 사용 효력을 어떻게 한층 더 향상시킬 것인가는 매우 긴박한 문제의 하나”<sup>23)</sup>가 될 수밖에 없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섰을 때 중국의 정보 능력은 정보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습득, 운용, 전파할 수 있는 중문으로 작성된

22) 盛玉麒, 〈漢語拼音新概念-三論中國語文現代化的機遇與挑戰〉, 《語文現代化論文集》, 8쪽.

23) 馮志偉, 〈發揮漢語拼音在信息時代的作用〉, 《語文現代化論文集》, 42쪽.

지식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보 능력은 이미 국가의 종합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 중국의 정보 능력은 어떠한가?(.....중략) 중국의 정보 능력 점수는 6.17로 미국의 8.6%에 불과하며, 한국과 브라질과 비교해도 15.3%와 40.2%에 불과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중략) 지금 인터넷상의 정보 80%는 영문이며, 중문은 0.4%도 되지 않는다.(.....중략)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만 명당 인터넷 호스트는 세계 평균이 3.10대이며, 선진 국가는 374.89대이며, 중하 국가는 2.41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겨우 0.16대에 불과해서 핀란드와 미국의 1/5,00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매우 낮다. 따라서 정보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중국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면한 중요한 전략적 임무이다.<sup>24)</sup>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보급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어문체계와 정보 과학기술의 부조화로 인한 정보 처리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자 코드는 중문 정보 처리에 불리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자료를 찾는 데도 불리하다. 필기 입력법이나 어음 입력법이 어떻게 발달하던 그것들은 모두 한자의 字符(문자 부호)가 너무 많고, 명확한 字序(글자 순서, 필획)가 없고, 단어를 끊지 않고 이어서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극복하기 어려운 곤란함에 직면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자를 유일한 작업 문자로 삼는 것을 견지해야만 하는가?(.....중략) 비록 한자는 어음이 통일되지 않았던 고대 중국에서는 방언을 뛰어넘는 정보 유통에 편리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보통화를 널리 추진하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실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한어병음의 기초 위에서 병음중문을 발전시켜 한자를 보조하고, 문자 코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문 전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sup>25)</sup>

병음문자는 문자 부호가 비교적 적고 단순해서 글자를 자모순으로 정리하기 편리하다. 하지만 중문은 영문이나 기타 병음문자와 달리 문자 부호가 한자의 수만큼

24) 王均, 〈開拓語文現代化的新局面〉, 《語文現代化論文集》, 2~3쪽.

25) 吳文超, 〈從漢語拼音到拼音中文〉, 《語文現代化論文集》, 197~198쪽.

나 많고, 구조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글자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중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중문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 운용, 전파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 제품과 인터넷 설비는 라틴자모를 사용하며, 한자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한자를 사용하려면 ‘漢化’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漢化’ 과정은 시간과 정력이 들어서 발전 수요를 쫓아갈 수 없다.”<sup>26)</sup> 이 때문에 중문은 국제 인터넷망의 발전, 세계경제의 일체화,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 생존방식의 발전 추세 속에서 한자와 한어의 생존공간과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세계와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27)</sup>

중문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상응하는 지위를 획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별도의 ‘漢化’ 과정이 필요 없는 국제표준의 〈한어병음방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한자를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한어병음만이 한자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한자를 입력하려면 사각형의 한자를 해체해서 일직선형 코드로 만들어야 하지만 한어병음자모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둘째, 한자는 ‘한자 문자코드표’와 같은 별도의 저장 장소를 필요로 하지만 한어병음자모는 별도의 저장 장소가 필요 없다. 셋째, 컴퓨터에서 GB6763개의 한자를 처리하는 한자 정보 교환 코드는 8836개의 문자 부호(주요 외국어 자모와 상용 부호를 포함)로 구성된다. 하지만 한어병음자모는 영문본 작업 방식의 ASCII 코드(상용부호를 포함한 128개의 문자 부호)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한자는 단어별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語義 단위를 판별해야 하지만, 한어병음자모는 단어별 띄어쓰기로 미리 語義 단위를 끊어 놓기 때문에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기 용이하다.<sup>28)</sup>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어병음자모를 사용하게 되면 중문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검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전파와 공유가 용이하다. 그리고 별도의 ‘漢化’

26) 楊士輝, 楊松, 〈“一語雙文”是漢字現代化的必由之路成功之路〉, <http://www.gzyywwz.net/bencandy.php?fid=46&id=5>

27) 盛玉麒, 〈漢語拼音新概念-三論中國語文現代化的機遇與挑戰〉, 《語文現代化論文集》, 7쪽 참조.

28) 王開揚, 〈“一語雙文”的理論基礎和面臨的困難〉, 《語文現代化論文集》, 36~37쪽 참조.

과정 없이 다른 자모문자와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어서 중국의 정보화와 현대화 과정을 더욱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

베트남은 이미 완전히 로마자모로 바뀌 쓰고 있으며, 한국어문도 한자와 한글 쌍문제에서 한글 전용으로의 이행을 완성했으며, 일본어문은 한자에 가나를 끼어 쓰던 데서 가나에 한자를 끼어 쓰는 쌍문제로 바뀌었다. 중국도 차례로 주음자모와 한어병음을 만들어서 한자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어문 교육과 처리를 편리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중국 사회는 자모를 검용할 수밖에 없다.(……중략) 한어가 자모화로 나가는 길은 곡절이 많고 더더 보이지만 중국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세계와 연계되고, 중문정보기술이 자모화를 긴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어의 자모화 과정은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sup>29)</sup>

지금은 약 20여 년에 걸친 중국 어문학계와 컴퓨터 정보과학기술계의 각고의 노력과 관련 기술의 꾸준한 향상에 따라 한자와 인터넷 생태계의 부조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각종 정보화 기기의 한자 코드 처리 기술은 ‘글자’ 처리와 ‘단어’ 처리 단계를 거쳐, 이미 ‘어구’ 처리 수준에 도달했다. 이처럼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생존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한자 코드 처리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한어병음자모의 역할 변화는 ‘一語雙文制’ 추진에 또 하나의 객관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 3. ‘非漢字符號’의 증가와 문자 인식의 변화

애초 ‘一語雙文制’는 주로 한자를 컴퓨터에 입출력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국제화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자의 디지털화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고,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의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애초와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一語雙文制’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바로 ‘非漢字符號’의 확산과 그에 따른 문자 인식의 변화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대다수 중국인들은 전통적인 한자와 ‘비한자부호’인 한어병음자모를 동등한 지위의 문자로 간주하지 않았다. 한자는 유일한 법정

29) 吳文超, 〈終極拼音’和一語雙文〉, <http://www.huayuqiao.org/articles/yuwenjianshetongxun/8610.htm>



문자였으며, 한어병음자모는 한자의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한어병음 ‘자모’를 한자와 동등한 ‘문자’의 지위로 승격시키려는 시도는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를 통한 일상적인 정보 교환과 소통이 늘어나면서 한자만으로는 더 이상 한어를 기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기기에서 한어병음자모와 같은 ‘비한자부호’가 한자를 대신해서 직접 한어를 표기하는 일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한자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했던 한어병음 ‘자모’를 마치 ‘문자’와 ‘어휘’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정보화 기기에서 사용하는 서면어는 더 이상 한자로만 구성되지 않게 되었다.

현대 한어 서면어 중에는 이미 대량의 비한자부호가 출현했다. 그 안에는 영문 원어, 자모 축약어, 연산기호 및 자모나 숫자를 한자와 혼합해서 만든 새로운 단어들도 포함된다. 인터넷에서는 더욱 많은 비한자부호, 심지어 대량의 조합 도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한자가 한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단, 새로운 기능,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sup>30)</sup>

예를 들면 政府의 병음 ‘zhengfu’를 ‘ZF’로 줄여 쓰거나 영어 단어 ‘Photoshop’을 ‘PS’로 줄여 쓰기도 한다.<sup>31)</sup> 특히 대화방 같은 곳에서는 자모와 숫자를 응용한 신조어들이 낱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MM’(妹妹), ‘GG’(哥哥), ‘BB’(Bye-Bye), ‘VG’(Very Good), ‘CU’(See you), ‘HRU’(How are yoy?), ‘我H香蕉’(我愛吃香蕉), ‘886’(拜拜嘍 ; 영문), 56(‘無聊’ ; 諧音), 8147(‘不要生氣’ ; 諧音), 7456(‘氣死我了’ ; 諧音) 등이 그것이다.<sup>32)</sup> 이러한 ‘비한자부호’를 사용할

30) 盛玉麒, 〈漢語拼音新概念-三論中國語文現代化的機遇與挑戰〉, 《語文現代化論文集》, 9쪽.

31) 2012년 8월 24일 DIDIKIRSTEN TATLOW 報道, 〈難寫的漢字〉 참조. [http://wenku.baidu.com/link?url=9AxUkr1ab61FbzdOdv69FOq2eDVLbWYGTJWRk1q40\\_U2hQck-R51krev45knU\\_a33QulTmMwCNqkeh1pH522WcfuTXWPvlg7cnQ2mnji-G](http://wenku.baidu.com/link?url=9AxUkr1ab61FbzdOdv69FOq2eDVLbWYGTJWRk1q40_U2hQck-R51krev45knU_a33QulTmMwCNqkeh1pH522WcfuTXWPvlg7cnQ2mnji-G)

32) 盛玉麒, 〈漢語拼音新概念-三論中國語文現代化的機遇與挑戰〉, 《語文現代化論文集》, 12쪽 참조.

때 사용자들은 문자부호의 통일성이나 정확한 독음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간편함과 속도, 의미전달만 고려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상당 부분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자 부호에 담긴 역사성과 전통성, 민족정서와 심미적 추구 같은 것들도 모두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一語雙文’은 결코 누군가의 발명이나 호소가 아니라 일종의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실이다. 현재의 문제는 서면한어에서 모든 비한자부호를 없앨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확실히 불가능하다. 비한자부호는 이미 한자와 하나가 되었으며, 한자와 공동으로 현대 한어를 기록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중략) ‘一語雙文’의 현실적 의미는 사실상 현대 한어가 자문화된 표현과 기록 형식을 획득해서 정보 인프라 공간에서 한자를 대신해서 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각부호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중략) 현재의 컴퓨터 사용자 중에 한자 정보를 처리할 때 한자는 코드가 있어야만 컴퓨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색해 하거나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이는 이미 관념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비약, 일종의 질적 비약이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33)</sup>

물론 이러한 ‘비한자부호’들을 모두 새로운 서면 ‘어휘’의 창안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기존의 서면어 질서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가깝다. 더욱이 그것들을 ‘한어병음방안’과 동일한 성격의 ‘비한자부호’로 간주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기기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용인되고 선호되고 있는 이러한 ‘비한자부호’의 창안과 사용은 분명히 그동안 한자가 독점해 오던 서면어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문자’의 범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묵인을 통한’<sup>34)</sup> 문자 인식의 변화는 ‘一語雙文制’를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객관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33) 盛玉麒, 〈漢語拼音新概念-三論中國語文現代化的機遇與挑戰〉, 《語文現代化論文集》, 13~14쪽.

34) DIDIKIRSTEN TATLOW 報道, 〈難寫的漢字〉 참조.

#### IV. 나오는 글

20세기 말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 시대는 기존 중국의 어문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손으로 ‘쓰기’에서 자판으로 ‘타자’ ‘입력’하는 글쓰기 방식의 디지털화에서부터, 생소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에서 펼쳐지는 각국 어문의 치열한 생존경쟁, 그리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정보화 기기의 보급과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非漢字符號’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어문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漢字一文制’ 정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어문개혁 과제들을 대두시켰다. 이에 한어와 한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식경제 시대의 어문환경에 맞춰 새로운 생존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이러한 객관적 어문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 ‘一語雙文制’ 주장이었다.

한어를 한자와 병음문자 두 가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一語雙文制’ 주장은 19세기 말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줄곧 정부의 문자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20세기 말의 ‘一語雙文制’ 주장은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이래로 꾸준히 추진해온 한자개혁 운동과 병음문자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문개혁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이상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이전의 한자개혁 주장이나 병음문자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한자 중심의 기존 어문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결코 한자의 위상과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자를 중국문화의 정수로 간주하여 통일화·규범화·표준화를 통해 한자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한어병음방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정보 과학기술과 기기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나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국어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중국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20세기 말의 ‘一語雙文制’ 주장은 예전의 유사 주장들에 비해 훨씬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어문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문자는 고정불변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다. 중국의 언어와 문자 역시 정부의 정책기조와 객관적 어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을 거듭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애초 象形字, 指事字, 會意字에서 출발한 한자는 한어의 성숙과 발전 과정에서 形聲字와 假借字의 비중을 끊임없이 증가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역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자형 구조의 직선화와 간화를 거치면서 애초의 형상에 적지 않은 변형이 일어났다. 특히 19세기 말부터는 서구 언어 문자와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문자 중심주의 언어관이 서구의 음성 중심주의 언어관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한어의 어휘구조도 종래의 단음절어 중심에서 다음절어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 왔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한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던 본연의 표의 기능과 성격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표음 기능과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초중반 중국 정부가 공포한 ‘注音字母’, ‘國語羅馬字’, ‘漢語拼音字母’ 등의 방안과 20세기 말 어문학자들이 제기한 ‘一語雙文制’ 주장들은 바로 이러한 한자의 표음성 강화 추세와 그에 따른 언어관의 변화에 기초한 것이었다.

20세기 말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중국 정부에게 새로운 차원의 어문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한자의 법정문자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영역에서는 한어병음자모의 ‘한어 코드’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가는 이원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자와 한어병음자모의 철저한 역할 분리와 상호 보완 기조는 각종 정보화 기기의 보급과 사용에 따른 객관적 어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그 경계와 구속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 기기에서의 한자 코드 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한어병음자모와 한자의 자동 변환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한어병음자모가 오프라인을 뛰어넘어 인터넷상에서까지 한어를 기록하는 국제표준으로 채용된다면 한어병음자모는 종래의 ‘한자 병음 부호’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한어 병음 문자’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정부의 ‘漢字一文制’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온라인상에서의 일상적인 어문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一語雙文制’가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다시금 아래로부터 위로 보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一語雙文制’ 도입 요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어문정책은 어문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혼란을 안정적으로 제어하

고, 통일된 어문제도를 통해 言衆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하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언어와 문자는 제도이기 이전에 도구이며, 그것의 주체는 국가라기보다는 언중들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어문정책은 궁극적으로 언중들의 효율적인 의견 개진과 정보 교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기초를 고수하기보다는 ‘一語雙文制’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 어문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언중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한편 그것을 토대로 중국어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參考文獻】

- 蘇培成, 顏逸明, 尹斌庸 編, 《語文現代化論文集》, 商務印書館, 2007.  
 蘇培成, 《中國語文現代化的回顧與展望》, 語文出版社, 2007, 35쪽.  
 蘇培成 主編, 《當代中國的語文改革和語文規範》, 商務印書館, 2010년.  
 蘇培成, 〈雙文制 : 面向21世紀的中國文字策略〉, 趙麗明, 黃國營 編, 《漢字的應用與傳播》, 華語教學出版社, 2000.  
 周有光, 〈中國語文的現代化〉, 《周有光言語學論文集》, 商務印書館, 2004.  
 馮志偉, 〈漢語拼音運動的歷史回顧〉, <http://www.people.com.cn/GB/guandian /1035/2068916.html>  
 楊士輝, 楊松, 〈“一語雙文”是漢字現代化的必由之路成功之路〉, <http://www.gzyywj.net/bencandy.php?fid=46&id=5>  
 吳文超, 〈終極拼音和一語雙文〉, <http://www.huayuqiao.org/articles/ yuwenjianshetongxun/8610.htm>  
 張育泉 輯錄, 〈“雙文制”論述集粹〉, <http://tieba.baidu.com/p/2407994564>

### 【中文提要】

20世紀80年代中期以來，中國政府一直堅持着“漢字一文制”。可是20世紀末信息化時代的開始，給現有的語文環境帶來了很大的變化。比如說，書寫方式的數字化，在互聯網生態系統中的生存競爭，“非漢字符號”的增加和文字認識的變化等造成了以“漢字一文制”很難解決的各種各樣的問題。因此，為了解決這些問題，一部分中國語文學者提出了由漢字和拼音兩種文字來表達現代漢語普通話的“一語雙文制”主張。20世紀末提出來的“一語雙文制”主張與以前的“漢字廢止”主張具有居然不同的看法。雖然對以漢字為中心的現有語文系統具有批判的認識，但決不否定了漢字的歷史地位和正統性。它一邊通過漢字的統一化、規範化、標準化提高了漢字的應用效率，另一邊通過〈漢語拼音方案〉的廣範使用應付了信息科學技術和器機的要求。中國政府和語文學者通過這一系列的對應方法穩定地保留着中國文化，同時成功地提高了中國語文的國際地位。

### 【主題語】

다중문자사용, 어문현대화, 한어병음, 인터넷, 정보화

一語雙文, 語文現代化, 漢語拼音, 互聯網, 信息化

digraphia, language modernization, Pinyin, internet, Informationalization.

투고일: 2016. 4. 13 / 심사일: 2016. 4. 20~5. 5 / 게재확정일: 2016. 5. 15